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9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4. 6. 7.

발 의 자 : 임의자 · 김태호 · 김형동  
김위상 · 곽규택 · 김성원  
김종양 · 김승수 · 최수진  
권영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,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재해발생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, 즉 사실상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재해조사가 동종·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기술적·과학적으로 원인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2 신설 등).

또한, 현재는 재해조사 시 근로감독관은 공단 등 관계전문가(이하

“공단등”이라 한다)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해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나,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.

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56조제1항 후단, 제56조제3항·제4항, 제162조제3호의2, 제162조의2 및 제170조제2호 등).

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고용노동부장관”을 “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(이하 “공단등”이라 한다)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중대재해 원인조사 공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  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

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70조제2호 중 “고용노동부장관”을 “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6조제1항 후단·제3항·제4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<br>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|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이 경우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(이하 “공단등”이라 한다)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 |
| ② (생략)  | ② (현행과 같음)   |
|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.<br><br><신설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-----<br>-----<br>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-----<br>-----<br>-.<br>④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은 공단등은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                      |

④ (생략)

<신설>

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등을 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 같음)

제56조의2(중대재해 원인조사 공

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·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 중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공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.

1.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등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



제162조(비밀유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13. (생략)

<신설>

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

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공개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2조(비밀유지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자

4. ~ 13. (현행과 같음)

제162조의2(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등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70조(벌칙) -----  
-----

|  |   |
|--|---|
|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  | -----<br>-----.   |
| 1. (생략)  | 1. (현행과 같음)   |
| 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<u>고용노동부장관</u> 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| 2.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등</u> -----<br>----- |
| 3. ~ 8. (생략)   | 3. ~ 8. (현행과 같음)  |